

2017년 5월 29일, 성산읍 삼달2리 삼달2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
제보자1: 강산옥(여, 1927년생, 성산읍 삼달2리)

제보자2: 김해생(여, 1923년생, 성산읍 삼달2리)

- 줄거리: 옛날에 저승 갈 때가 안된 사람이 저승 가게 되면 저승에서 강아지를 내주며 따라가라고 한다. 그 강아지를 따라가게 되면 이승으로 돌아온다고 한다.

[제보자2] 옛날에 저승 가그네 때 안 뒤민, 흰 강생이 혼나 내노민, 그 조춤에 뚤앙 나오 랗젠. 강생이 노민 강생이 쫓아 돌아가렌 허민 돌아오랫젠, 경 행 살안.

[청중] 말 못 알아먹으켜.

[제보자1] 옛날 할망덜 저승을 가나네. 너 때가 안 됐던 시간이 안 됐던. 돌아가렌, 이제 허난 어딜 돌아갈 디 몰르난. 강아질 놔네 이 강아지 가는 대로 값이민 이승을 가진덴 허난, 강생이 쫓안 오란 깨난 보난 이승이라.

게난 꿈 속에서 이젠 저승사자가 오란, 맹 잇인 걸 제 맹 못 산 사름 찍신 걸 잡아가분 거라.

그디 가난 넌 혜당이 아니난 돌아가렌, 게난 이젠 돌아오젠 헤도 쫓지 못허 난. 강아질 내난, 이 강아지 가는 대로만 가렌 헨 돌아왓젠 허난, 거 거짓말산 디 우린 들은 뿐. 본 디 엊어.

[제보자2] 옛날 할망덜 들음 뿐, 밟어?

[제보자1] 본 디 엊어.

[제보자2] 옛날 역사덜이주.

[제보자1] 본 디 엊어.

- 핵심어 : 저승, 강생이, 이승, 저승사자, 강아지